



Giant Biogene Holding (2367.HK)

반등 기다리기

- 화장품 사업에서 3등급 의료기기로 영역 확장 중인 피부미용 업체
- 재조합 콜라겐 기반 드레싱, 세럼, 마스크 등으로 빠르게 실적 성장 중
- 최근 3등급 의료기기 허가 지연, 허위 광고 논란으로 주가 -30% 하락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5. 6. 23.): 51.20HKD
목표주가 컨센서스: 80.58HKD

▶ 투자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100%	0%

Stock Data

산업분류	개인관리용품
형성 (6/23)	23,689.13
현재주가/목표주가 (HKD)	51.2 / 80.58
52주 최고/최저 (HKD)	86.13 / 34.61
시가총액 (백만 HKD)	54,830
유통주식 수 (백만 주)	481
일평균거래량 (3M)	11,324,907

Earnings & Valuation

(백만 위안)	FY23	FY24	FY25E	FY26E
매출액	3,524	5,539	7,076	8,930
영업이익	1,611	2,282	2,864	3,557
OPM(%)	45.7	41.2	40.5	39.8
순이익	1,452	2,062	2,519	3,122
EPS	1.5	2.1	2.4	3.0
증가율(%)	51.0	39.2	18.6	23.9
PER(배)	22.1	23.3	21.0	16.9
PBR(배)	7.3	6.8	5.9	4.7
ROE(%)	40.4	36.0	30.2	30.5
배당수익률(%)	0.0	0.8	2.2	3.0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9.2	-28.9	6.4	25.6
항셍	20.5	2.4	20.3	34.1

('23.6.24=100) — 자이언트 바이오진 홀딩 — 항셍 지수



자료: 데이터 스트림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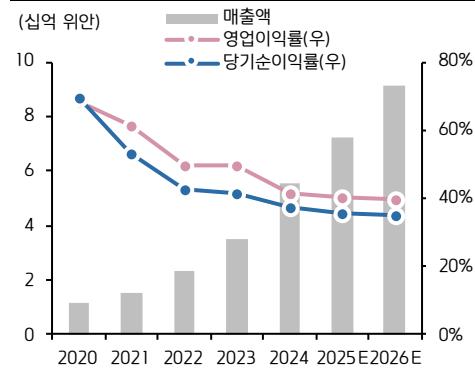
재조합 콜라겐 기반 화장품으로 일어난 회사
'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55.4 억 위안(약 1.0 조 원, YoY +57.2%), 매출총이익 45.5 억 위안(약 8,680 억 원, YoY +54.3%, 매출총이익률 82.1%), 영업이익 22.8 억 위안(약 4,314 억 원, YoY +30.7%, 영업이익률 41.2%), 당기순이익 20.6 억 위안(약 3,897 억 원, YoY +42.1%, 당기순이익률 37.2%)를 기록했다. 동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합성 후 재조합한 콜라겐 성분을 기반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허위 광고 논란 등으로 618 행사 순위 8단계 하락
지난 5월 24일, 경쟁사 인플루언서가 동사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유효성분이 과장된 채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해당 시점부터 주가는 -29.7% 하락하였다. 미용에 관련되어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한 사업을 하고 있어 관련 이슈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여러 대목 중 하나인 618 행사에서도 총 상품 가치(GMV: Gross Merchandise Volume) 기준 순위가 크게 밀렸다. '24년 Duoyin에서 GMV 순위 8 등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 '25년에는 16등으로 1년 만에 8단계 하락하였다. 상위 10개 브랜드의 경우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위의 논란이 마케팅 대목인 618 행사 시즌에 유의미한 타격을 입혔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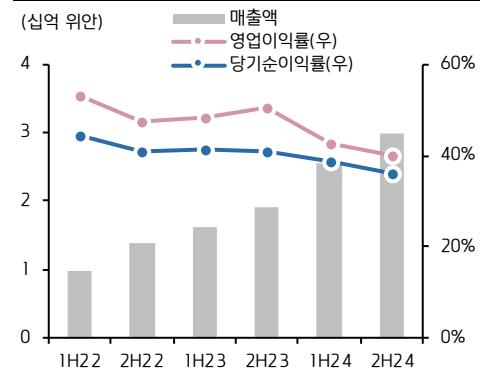
지켜볼 모멘텀은 1H25 실적 발표, 의료기기 필러 허가 획득
홍콩 상장사로서 반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므로 8월에 '25년 상반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에도 우수한 YoY 성장률을 기록할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4년에 획득할 것이라 예상되던 재조합 콜라겐 기반 3등급 의료기기 필러 허가가 '25년 내로 나올지도 관건이다. 가장 위험 등급이 높아 규제가 까다로운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 기술력과 동시에 이미 약 4,700 개소의 병원, 650 개소의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Giant Biogene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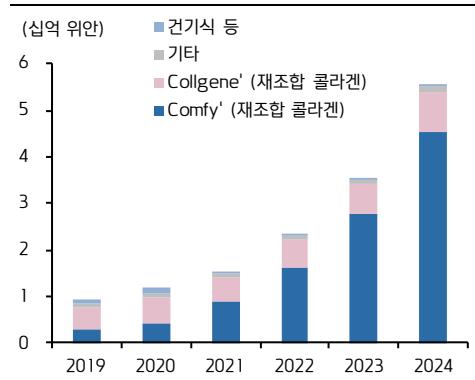
주) 전망치는 Bloomberg Consensus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반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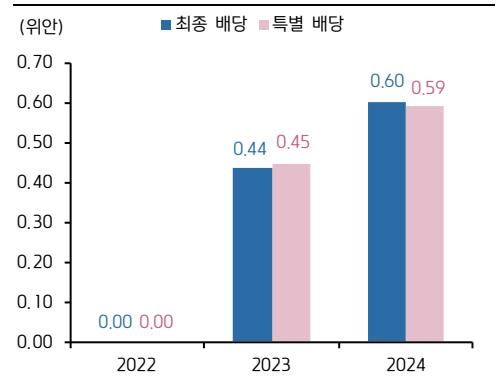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사업부별 매출액 분류 추이



주) 전망치는 Bloomberg Consensus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연간 세전 DPS 추이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브랜드 'Comfy'(可得微)의 메디컬 드레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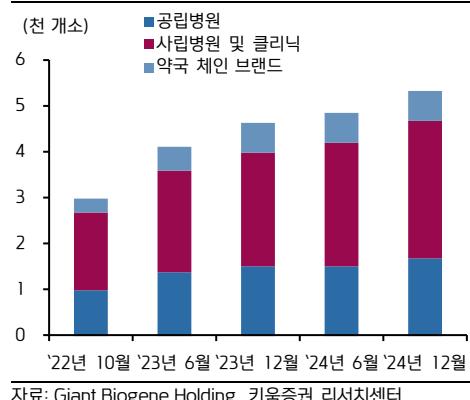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주요 브랜드 'Comfy'(可得微)의 피부 재생 세럼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Giant Biogene 의료기관 네트워크 추이



Giant Biogene Holding의 주요 브랜드 7개

Our Major Brand Portfolio with a Broad Range of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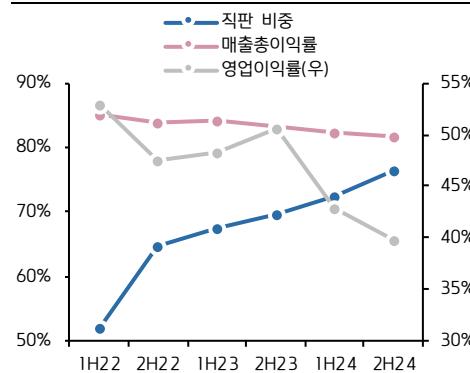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골재생, 필러 3 등급 의료기기 시장 진출 중

During the Reporting Period, we successfully advanced the research, develop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of class III medical devices. We obtained the class III medical device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bone repair materials, and our injectable recombinant collagen filler product was granted priority approval. Moving forward, we will continue to build on our technological foundation, address significant societal needs, and strive relentlessly to achieve further breakthroug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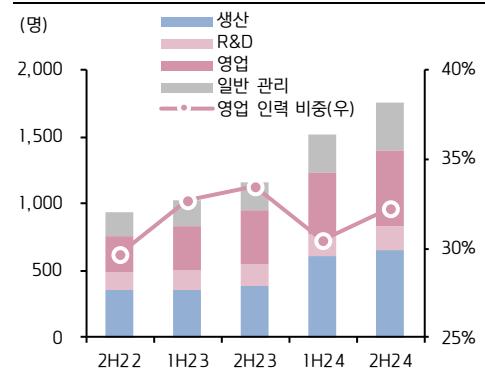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Giant Biogene 직판 비중과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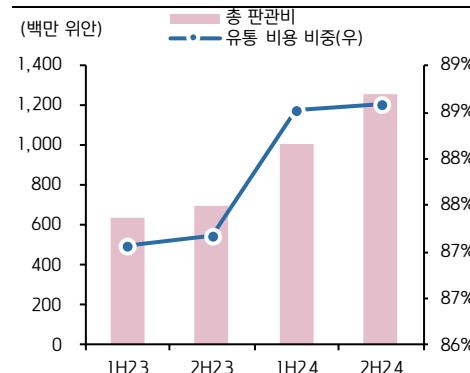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반기별 인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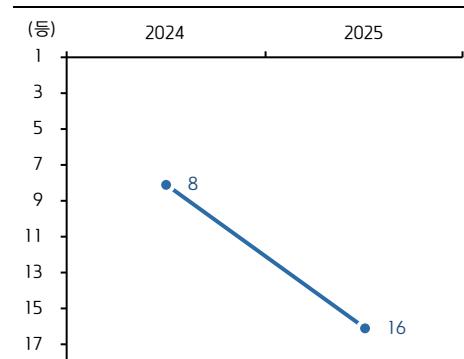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반기별 판관비 추이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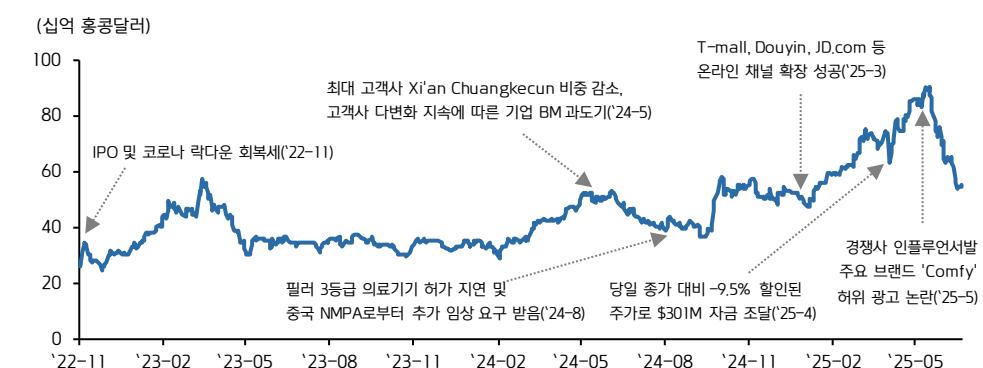
'Comfy(可得美: KeFuMei)' 중국 618 행사 순위



주) Douyin GMV 기준 순위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Giant Biogene Holding 시가총액 추이 분석



자료: Giant Biogene Holding, 언론보도,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